

Article-1, 1985 년에 씀  
(필자의 승인 없는 인용을 금함)

# 한글 통일 글자판 시안

안마태

(필자 주: 이 글은 1985년 5월호 New Life 지에 실렸던 것이다. 이 New Life 지(월간)는 로스 엔젤레스에서 1977년도부터 1990년까지 약 14년동안 순수한 한글로만 간행해 왔고, 한글의 기계화에 상당한 공헌을 해 왔다. 이 자판을 만들게 된 동기가 바로 이 교양지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생겼기에 역사적인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여기에 다시 게재한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글자가 쉽고 기계화가 능한 나라일수록 그 문화발전 속도는 빠를 것이고, 그와 반대로 글자가 어렵고 기계화가 불가능한 나라일수록 그만큼 문화적 발전이 뒤쳐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약 500년 전에 아주 과학적인 글인 ‘한글’을 만들어서 사용해 왔기에 문화발전을 위한 아주 좋은 발판을 세워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족의 비운과 함께 우리나라 글을 빼앗길 뻔했던 역사적인 사실도 있었고, 또한 사대주의 사상에 너무 젖어 중국의 한문을 들여다가 오래도록 써왔던 연유로 우리글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상도 있었다.

하지만 민족의 수난 가운데서도 뜻있는 여러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민족의 자랑거리인 이 글이 지켜져왔고, 우리 민족의 문화가 말살되지 않고 오늘날 까지 전해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계화를 하는데 등한시한 나머지 현재까지 한글을 사용하는 6-7천만이나 되는 우리 민족이 통일글자판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온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래전부터 우리민족의 고유한 문화적인 전통을 살리고, 또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좋은 이 글을 어떻게 하면 잘 가꾸고 기계화하여 현대화에 뒤지지 않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하고 연구를 거듭해왔다.

특히 1960년도 초, 연세대학을 다닐 때, 연세춘추사에 근무한 일이 있었다. 그 당시 연세대학 부총장으로 계셨고 한글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신 최현배 박사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었다. 연세춘추에다 ‘한글 가로 풀어쓰기’를 최박사님이 연재했고 연재에 필요한 원고를 받기 위하여 최현배 박사님의 댁을 여러번 방문했다. 방문시에 사제지간의 좋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의 지론인 한글 보존운동이 바로 애국애족 운동이고 독립운동이라는 말씀을 여러번 거듭했다. 기계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 한글의 기계화가 없으면 우리민족은 문화적으로 영원히 후퇴할 것이라고 예언자적인 말씀을 여러번 하시는 것을 들었다.

필자는 1964년도 초에 뉴질랜드에 가서 그곳의 발전되고 기계화된 문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그때 느낀 것은 이렇게 작은 나라도 자기 글을 과학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남의 나라 글을 버리지 못하고 쓰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글의 기계화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을 칠 정도로 통탄한 적이 있었다. 필자는 1966년에 귀국한 후, 국내에서 여러번 한글의 과학화를 역설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한다고 웃어뜯들로 부터 야단맞던 기억이난다. 그러다가 1969년에 미국으로 다시

유학을 왔고, 그 당시 산업선교 훈련을 받느라 여러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시카고의 어느 인쇄공장에서 장기간 일하게 되었다.

이 회사는 ‘도날리 앤드 산스’ 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인쇄회사로써, 백과사전, 몇천 페이지의 카탈록, 전화번호부등 여러가지 정기 간행물들이 모두 이 회사에서 발간되고 있었다. 이미 이 회사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식자도 하고, 컴퓨터가 집체만한 운전기를 가동하고 있는것을 보고,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기계화가 되겠지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 보았고, 우리 한글도 이러한 기계화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굳게 가졌었다. 그래서 산업선교 공부 보다는 오히려 한글의 기계화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여 이 공장에서 약 1 년간 일하면서 부지런히 인쇄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

그 당시 필자는 영문 타자기를 10 여년 전 부터 사용해 왔기에 매 분당 약 50 자의 단어를 칠줄 알지만, 우리의 글인 한글을 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느꼈으며, 또 한글의 기계화를 빨리할 수 있는길은 나부터 먼저 타자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래서 한글타자기를 먼저 구입하기로 했다. 제일 먼저 구입한 타자기가 공병우식 한국 타자기였다. 이 타자기를 써보니까 글을 손으로 쓰는것 보다 처음에는 느리고 불편했으나 며칠 안가서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것을 발견하게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고하게 되었다.

얼마 후 다른 타자기를 주문하였는데, 그 타자기는 글자 자판이 공병우식의 세벌식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표준화 하였다는 4 벌식의 상당히 복잡한 자판이라는것을 발견하여 다시 타자연습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불편을 겪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왜 이렇게 타자기 글자판이 여러가지 있어야하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타자기를 사용하지않는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파했고, 기회 있을때 마다 한글의 기계화를 주장하며 이 방면의 공부를 계속하였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글 기계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통일된 한글의 글자판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 이분야의 자료를 모으고 연구 검토하였다.

그동안 필자가 수집한 자료로는 현재까지 컴퓨터나 타자기의 자판이 이미 20 여종 이나 나와있어 매우 많은 혼선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국무총리령으로 정부가 지정한 2 벌식과 4 벌식 자판이 1969 년도 부터 강제로 사용 되면서, 국내 여론들은 강제성을 띤 이러한 타자기 글자판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는것을 보았는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정부가 제정한 4 벌식 한글 글자판을 폐기하여 거의 쓰지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한가지씩 불필요한것을 없애는 단계로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되었다.

한글 타자기 자판의 통일성 없는 여러가지 현실을 보고 필자는 우리민족이 공통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자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 이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또 직접적인 동기로는 1977 년도 부터 ‘뉴 라이프’지를 간행하면서 글자를 뽑는 사진식자기를 일본에서 사들이면서 부터였다. 일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것도 문제였지만 사용해보니 손으로 한자한자씩 찍어내야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를 편집하는데 있어, 영어는 5 분도 걸리지않는 시간을 두시간이라는 막대한 시간이 걸리는것을 보고 빨리 이 기계만이라도 컴퓨터나 혹은 다른 기계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제일 먼저 다가온 과제는 어떤 한글 자판을 사용 할것이냐는 문제였다.

오랫동안 연구해본 결과 그 동안 개발된 어느 자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따라서 입력의 가장 기본 요소가 되는 한글의 자판 연구부터 먼저하기 시작했다. 이 자판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한글에 대한 연구를 하지않을 수 없었고, 한글 자체의 과학적인것을 살리면서 빠른 시간내에도 오타가 나지않는 기계를 만드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기로했다. 한글 글자판을 새로이 만들수 밖에 없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글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한글의

모아쓰기에서 되어지는 글자의 사용빈도를 조사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번 한국에도 여행을 했고, 미국에서도 여러가지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모아진 자료와 필자가 '뉴라이프'지에 실은 한글의 빈도를 약 7 년간 조사한 통계를 비교하여보니, 한국 과학 기술 정보 센터에서 발행한 '한글 한자 잭가 조사 일람표'가 필자가 연구 조사한 수치와 비슷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 문교부나 과학기술처가 조사한 통계자료는 본인이 조사한 빈도 조사결과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2 벌식과 4 벌식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게한 조국의 문화정책에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떤 과학이든지 기초과학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것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것처럼 이러한 사용빈도 조사의 잘못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가지고 사용한 한글 글자 배열은 그래서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였다.

우리 재미 동포 사회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한글 전용 간행물들을 만들어 사용했으며,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았다. 이곳 로스엔젤스만해도 일간신문, 주간신문, 월간신문 및 월간 잡지 등 그 종류만해도 수십가지이며, 그 이외에 여러 기관의 기관지까지 합치면 한글을 쓰는 간행물은 수십중에 도달하고 있고, 한글을 써서 밥을먹는 사람 역시 몇백명이 된다고 볼 수있다.

이렇게 우리 한글의 기계화 혹은 한글의 과학화를 우리 재미동포 사회가 조국 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다는것에 대해서 필자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며, 한글에 관한한 우리 재미동포 사회가 자랑할 내용들이 많다고 하겠다. 우리가 1903 년 부터 시작된 초기 이민자들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때에 이민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문맹자였음을 알게된다. 이분들이 낮에는 하와이의 피약벌에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저녁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며, 공부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영어와 한글이었다고 한다. 남의 나라에 와서 노동을하며 천대를 받아가며 살았지만, 열심히 배워서 천대도 덜받고 남보다 더 잘되고자 이곳의 주 언어인 영어 공부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한글 공부를 부지런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맹자가 없어지고 잘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아마 이분들이 그 당시 조국에서 쓰여진 한문 공부를 하였다면 문맹을 면치 못했으리라고 본다.

두번째로 우리 교포사회가 자랑할 수 있는것은 국내에서도 하지 못하는 한글만으로 된 간행물들을 만들어 사용해왔다는 사실이다. 그 뿐 아니라 타자기도 재미 동포 사회가 제일 먼저 개발하여 사용해왔다. 재미 동포 사회에서는 1910 년대에 세로로 타자하여 쓸 수 있는 타자기를 만들어 실용화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한문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한글만을 사용해왔으며, 이를 기계화하여 많은 간행물을 만들어 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사는 동포들이 한글기계화에 가장 앞장서 왔고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할수 있겠다.

그뿐만아니라 근래에와서 한글 컴퓨터 사진 식자기를 이곳 로스엔젤스에 있는 한국 일보가 제일먼저 개발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할 일이다. 그리고 동부에 계시는 공병우 박사께서 70 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약 2 년간에 걸친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아주 값이 저렴하고 컴퓨터화된 사진 식자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은 이제 머지 않아 조국의 인쇄 문화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좋은 징조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최근에 와서 급격한 과학의 변화, 특히 소형 컴퓨터의 발명으로 인하여 나날이 글자 처리의 기계화 문명이 발전해 가는데, 한글로 문자 처리를 하는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입력 부분의 글자판 통일이 되어있지 않아 이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널리 쓰여질 수 있는 한글 자판 시안을 내어 놓게 되었다.

이 한글 통일 자판 시안은 필자가 발행인으로 있는 ‘뉴라이프’지의 기사를 7년간 조사 분석한 빈도와, 과학기술 정보센터의 ‘한글 한문 찾기 조사 일람표’에 나와있는 모아 쓴 글자를 모두 분해하여 찾은 빈도 수의 평균을 내어 배열하였기에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시안은 여러 전문가들의 손이 필요하며 완성 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이 시안이 조국의 과학자들과 해외에 산재해 있는 한글을 연구하는, 특히 한글 기계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평가를 받길 기대한다.

이 한글 통일 글자판 시안의 **첫째 장점**은 과학적인 배열방식을 사용하였으므로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1) 사용빈도가 적거나 거의 쓰이지않는 자소는 모두 윗단에 배열했고 그 대신 하단에 94.44%의 글씨가 놓여져서 글자가 되도록 했으며, (2) 정부지정 2 별식과 공병우 3 별식은 두가지 모두 왼손의 사용율이 너무 높으며, 한편 김동훈식 5 별 글자판은 오른 손을 너무 많이 쓴다. 한손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게되면 오퍼레이터가 피곤해져서 속도가 느려지고 오타가 많이 생기게 되는점에 유의하여 오른손의 사용비율은 52.24%, 왼손의 사용 비율은 47.76%가 되어 양손이 거의 고루 사용되도록 고안한 점이다. (3) 동작이 느린 새끼손가락의 사용빈도가 적게되어 있으며, (4)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글자판이 연타를 요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글자판은 연타가 전혀 없게 고안되어 시간이 절약되고, 쌍자음과 쌍모음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 예를 들면 한글 사용빈도에서 제 1 위를 차지하는 ‘의’ 자의 경우 사용빈도가 14%나 되는데 쌍모음자 ‘니’가 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전체 속도에서 거의 5%나 더 빨라지는 수학적 통계가 나온다. 글자 한자에서 벌써 5%가 빨라진다고 하는것은 모아진 한글 글자 약 2, 000 자를 생각할 때 이 글자 배열은 상당한 속도가 난다는 것을 미리 짐작할수가 있다.

이 글자판의 **두번째 장점**은 종전에 고안된 타자기 자판에서는 글자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경우가 많고, 컴퓨터에서는 받침이 그 다음자가 모음이면 초성 자음으로 뛰어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자판에서는 이런 현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만큼 앞서간 자판이라고 볼 수가 있다.

**세번째 장점**은 한글의 초성이 19 자, 중성 21 자, 종성이 28 자로 글자의 자모수가 모두 68 자가 되는데 이 새로운 한글 통일 글자판에서는 사용빈도수가 전체의 0.02%밖에 안되는 아주 희귀한 종성의 쌍받침 12 자만 편의상 글자판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99.98%라는 거의 모든 글자가 3 타 이내로 활자가 되므로 속도도 빠르고 오타율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네번째 장점**은 이제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수동식 타자기는 거의 만들지 않고있으며 스틱식, 테이지 휠식, 전자 메모리식, 도트 매트릭식 등 여러가지 전동 타자기들이 등장하여 사용도 편리하고, 용도도 다양하게 되어가며, 특히 소형 컴퓨터의 등장으로 레이저식, 도트 매트릭식, 젯트 잉크식, 써말식 등 어지러울 정도로 새로운 방식의 컴퓨터 프린터가 나오고 있으며, 자동 사식기 컴퓨터로는 디지털식, 필립 폰트식, 부라스터식 및 레이저식 등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글자를 생산하는 모든 기계에 이 글자판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섯번째 장점**은 컴퓨터에서의 프로그래밍이 쉬워진다는 사실이다. 정부지정 2 별식 자판으로는 프로그램을 짤 때에 반드시 내부적으로는 3 별식으로 다시 짜야하는데, 이 자판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프로그램 짜기가 용이해지며,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

**여섯번째 장점**은 컴퓨터에 있어 하드웨어에 변화가 전혀 없고, 타자기에 있어서 세계적인 공동 자판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가장 큰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일곱번째 장점은** 그동안의 중요한 자판으로는 정부지정 2 별식, 공병우 3 별식, 정부지정 4 별식, 김동훈 5 별식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자판배열의 모든 결함을 거의 모두 보완하여 만든 새로운 자판이므로 앞으로의 글자판 통일에 가장 적합하다고 장담할 수 있다.

**여덟번째 장점은** 한글의 과학적 특성인 초성, 중성, 종성의 순서와 글이 쓰여지고, 글이 모여지는 위치를 글자판에 그대로 적용하였으므로 가장 자연스러운 배열이며,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좋은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아홉번째 장점은** 이 글자판을 사용하면 컴퓨터의 경우 오자 자동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있고, 영어에서 처럼 순서에 따라 소팅(Sorting)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잇점을 갖고있다.

**열번째 장점은** 타자기의 경우 쌍자음과 쌍모음을 한 자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글씨체가 종전의 어떤 타자기 글씨체 보다 예쁘게 찍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자판일지라도 몇가지 결함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단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점은** 그동안 사용해온 정부지정 2 별식과 공병우 3 별식 보다는 자모 수가 몇자 더 많아서, 자수를 외우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글자판은 정부지정 4 별식이나 김동훈 5 별식에 비해서는 시간이 훨씬 덜 걸린다. 이러한 단점은 처음 몇시간 더 걸려서 외운다 하더라도 한번 사용하여 손이 익숙해지면 그 동안 쓰여온 2 별식 글자판 보다는 적어도 50%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장담할 수 있다.

**둘째 단점은** 그동안 글자판이 너무 많이 나와있어서 국민들은 한글 글자판이라면 이제 고개를 흔들 정도이므로, 또하나의 글자판이 나왔구나 하고 천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자판은 상당히 오랫동안 통계 자료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새로이 배열한 자판이기에 가까운 날이 될지 먼 훗날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 자판이 가장 적합하다고 각광을 받을 날이 꼭 오리라고 확신한다.

이미 이 새로운 한글 자판을 이 분야의 권위자들과 컴퓨터를 전공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의 가장 반가운 소식은 텍사스의 우리 교포 업체가 필자의 글자판으로 한글의 컴퓨터화, 타자화 및 사진 식자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것은 그동안의 남모를 고통과 서러움을 한꺼번에 씻을 수 있는 영광이라 생각된다.

또 멀지않은 장래에 이분들의 제품이 나와서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널리 쓰여지고, 본국은 물론 북한 동포들에게 까지 쓰여져 남북 통일에 이바지하게 되고,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전통이 이어져 가길 바라며, 몸은 비록 외국에 나와 있지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조국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보다 많은 젊은 과학도들이 나와서 이러한 우리 한글 기계화 발전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그 동안 필자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국내외 많은 학자들과 이 방면의 선배들에게 끝없는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1985년 5월에 씀)  
(2003년 10월 3일에 고침)
